

女性 高等教育의 理解와 反省

林 善 姬

(忠南大 教育學科)

1. 머리말

한국의 대학교육은 해방 이래 양적·질적 측면에서 크게 발전하여 왔다. 1945년 해방 당시 고등교육 기관은 19개로 교원은 753명, 재적 학생은 7,819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여학생은 1,086명으로 13.9%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학의 발전 과정 속에서 한국의 고등교육 기관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국 여성의 고등교육도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 고등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한국 대학의 문제들과 無關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 여성 고등교육에 관한 理解는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이해와 결코 분리시켜 생각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고등교육의 이념, 기능과 역할, 속성 등에 관련된 문제들이 당연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다 포함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여성 고등교육의 이해와 반성을 위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사회에서 여성 고등교육의 機會, 過程, 結果의 문

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2. 女性 高等教育에 대한 理解와 反省

1) 教育의 機會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교육 연수는 1960년의 3.86년에서 1980년에는 7.61년으로 20여 년 동안 약 3.75년이 늘어났으며, 여자는 2.92년에서 6.63년으로, 남자는 4.78년에서 8.67년으로 각각 증가하였다.¹⁾ 연령 계층이 낮아질수록 성별 평균 교육 연수의 차이는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남녀간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適齡人口에 대한 취학율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1949년 교육법 제정에 의하여 초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제도화된 이후부터 증가되어 1960년대에 이르러는 국민학교는 취학율에서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상급 학교로 갈수록 차이를 보인다.

특히 고등교육의 경우, 1986년 현재 여자 22.0%, 남자 49.4%의 취학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1966년의 각각 4.3%, 11.9%, 1970년의 4.1%,

1)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1960, 1980.

〈표 1〉 학교급 및 성별 취업률(1965~1986)

(단위: %)

연도	국민 학교		중 학교		고 등 학 교				초급·전문 및		대 학 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인 문		실 업		교 육 대 학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1965	—	—	30.9	42.0		33.5	38.3		50.6	55.5	26.8	37.6
1970	44.1	48.3	14.7	16.6	17.9	20.3	55.2	55.8	78.4	81.3	50.5	65.1
1975	36.4	36.8	20.8	20.1	18.7	14.9	53.5	55.9	21.6	13.2	55.4	65.4
1980	55.7	57.4	29.2	20.5	21.3	11.0	62.8	54.0	75.5	85.1	55.2	69.8
1981	60.1	59.5	34.0	23.3	20.9	11.9	62.7	48.9	43.0	28.4	52.6	45.6
1982	—	—	—	—	19.9	10.1	60.1	46.6	45.0	26.9	51.2	67.6
1983	—	—	—	—	23.3	9.2	59.0	45.9	49.1	31.9	46.4	61.7
1984	—	—	—	—	24.1	10.4	62.6	54.3	51.4	25.4	40.6	61.6
1985	—	—	—	—	24.2	9.7	65.6	54.3	39.2	24.2	31.7	54.2
1986	—	—	—	—	23.2	10.9	68.6	58.4	52.3	37.5	28.1	65.8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여성 관련 사회 통계 및 지표, p.174.

11.5%, 1975년의 4.5%, 10.8%, 1980년의 8.4%, 24.3%에 비하면, 남자의 경우 약 2배 정도의 증가를 보인 데 비하여 여자의 경우는 4~5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80년 이후부터는 남녀 모두 비슷한 추세로 꾸준한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등교육 단계를 형태별로 살펴 보면 초급·전문 및 교육대학의 경우, 여자 비율은 1986년 현재 39.1%이며, 대학교의 경우 26.6%이다. 1965년의 경우, 여자 비율은 41.8%, '70년 52.1%, '75년 59.3%, '80년 29.6%로 '70년대를 제외하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반

해 대학교의 경우는 '65년부터 비교적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다.

진학률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여자와 남자의 비율은 각각 1966년 27.0%, 28.9%, 1970년 28.6%, 27.6%, 1975년 24.9%, 26.5%, 1980년 22.9%, 30.3%, 1985년 34.1%, 38.3%, 1986년 32.6%, 39.7%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교의 경우, 대학에서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여자와 남자의 비율은 각각 1970년 5.7%, 6.6%, 1975년 4.8%, 6.8%, 1980년 10.3%, 14.3%, 1985년 6.6%, 12.1%, 1986년 5.6%,

〈표 2〉 성별 인구 만명당 학위 취득자(1965~1986)

(단위: 명, %, 10,000명당)

연도	학 사 학 위				석 사 학 위				박 사 학 위			
	학위취득자 수		인구만명당 학위취득자		학위취득자 수		인구만명당 학위취득자		학위취득자 수		인구만명당 학위취득자	
	계	여자비율	여 자	남 자	계	여자비율	여 자	남 자	계	여자비율	여 자	남 자
1965	36,180	16.9	4.32	20.80	1,162	10.4	0.08	0.72	59	13.6	0.006	0.035
1970	23,515	25.8	3.88	11.48	1,978	11.4	0.14	1.15	172	2.3	0.003	0.111
1975	33,610	28.9	5.64	13.70	3,090	18.3	0.33	1.45	376	2.4	0.005	0.210
1980	49,735	31.8	8.47	18.09	5,028	19.7	0.53	2.15	524	9.0	0.025	0.254
1981	55,846	29.7	8.64	20.09	7,274	19.8	0.75	2.99	666	6.2	0.021	0.317
1982	57,143	35.2	10.32	18.66	9,449	19.9	0.97	3.81	719	7.8	0.029	0.334
1983	77,272	29.4	11.47	27.07	12,353	19.4	1.21	4.94	861	8.6	0.037	0.390
1984	90,833	30.5	11.31	30.84	14,903	19.0	1.41	5.89	1,057	8.6	0.045	0.472
1985	118,584	36.1	21.11	37.58	16,690	18.5	1.53	6.74	1,347	10.2	0.068	0.581

〈표 3〉 전공 분야별 여자 대학생 분포 및 여자 비율¹⁾(1965, 1970, 1975, 1980~1986)

단위 : %(명)

구분	계	공통학계	어문학계	예술학계	인문과학계	사회과학계	체육학계	이학계	공학계	의약학계	농림학계	해양수산학계	사범계
1965													
계	100.0(105,643)	—	9.6	4.6	8.6	27.5	1.6	9.1	16.7	8.9	8.2	1.1	4.2
여자	100.0(23,761)	—	18.6	14.4	13.8	8.1	2.2	16.2	0.6	13.3	2.5	0.0	10.2
여자비율	22.5	—	43.3	70.4	36.4	6.7	31.6	40.0	0.9	33.8	6.8	0.9	55.1
1970													
계	100.0(136,414)	—	8.3	4.6	4.8	26.2	1.2	9.8	17.1	9.4	7.8	1.4	9.5
여자	100.0(32,641)	—	13.9	13.7	4.7	10.2	1.9	18.1	0.9	13.5	2.4	0.1	20.5
여자비율	22.3	—	40.2	72.2	23.6	9.3	40.1	44.4	1.2	34.4	7.5	1.2	51.5
1975													
계	100.0(208,986)	7.6	6.6	4.9	3.3	17.9	1.1	7.3	21.3	8.0	5.8	1.2	14.0
여자	100.0(55,439)	8.5	9.6	14.3	2.7	6.0	1.5	13.1	1.0	11.1	2.5	0.1	29.8
여자비율	26.5	29.7	38.3	77.2	21.3	8.9	34.9	47.3	1.3	36.5	11.2	2.3	52.9
1980													
계	100.0(402,979)	2.5	8.3	4.6	2.7	21.1	0.8	8.4	26.1	5.5	5.8	0.9	13.3
여자	100.0(90,634)	3.5	12.6	15.7	2.5	7.3	1.5	16.9	1.4	7.7	2.6	0.1	28.0
여자비율	22.5	31.2	34.2	76.3	21.4	7.7	42.0	45.1	1.2	31.7	10.2	3.3	47.5
1981													
계	100.0(535,876)	2.0	10.0	4.5	2.8	23.1	0.7	8.5	25.1	4.8	5.1	0.7	12.7
여자	100.0(122,318)	3.1	15.6	14.5	3.3	8.9	1.5	15.9	1.3	6.3	2.4	0.1	27.2
여자비율	22.8	35.0	35.6	74.0	27.2	8.8	47.1	42.8	1.2	30.0	10.6	2.6	48.7
1982													
계	100.0(661,125)	1.2	11.4	4.5	3.3	21.0	0.7	8.8	26.2	4.9	5.1	0.6	12.2
여자	100.0(160,128)	1.3	17.4	13.5	4.4	8.4	1.2	15.3	1.5	5.8	2.3	0.1	28.8
여자비율	24.2	26.9	36.8	71.9	33.1	9.7	41.9	42.1	1.4	28.4	10.8	4.7	57.2
1983													
계	100.0(772,907)	0.3	12.0	4.5	3.6	23.0	0.8	9.3	23.7	4.3	5.3	0.7	12.5
여자	100.0(199,449)	0.4	19.9	12.3	5.1	9.7	1.3	15.1	1.4	5.2	2.0	0.1	27.7
여자비율	25.8	37.7	42.6	70.8	36.3	10.9	40.2	41.8	1.5	31.4	9.7	4.9	57.1
1984													
계	100.0(870,170)	0.0	12.5	4.5	3.8	27.0	1.0	9.4	21.3	4.2	4.4	0.7	11.1
여자	100.0(232,972)	0.0	20.8	11.8	5.1	13.8	1.4	14.8	1.7	5.1	2.0	0.1	23.4
여자비율	26.8	1.9	44.5	70.0	36.4	13.7	39.4	41.8	2.1	32.2	12.3	3.7	56.5
1985													
계	100.0(931,884)	—	12.6	4.6	3.4	27.7	1.1	9.5	21.4	4.2	4.4	0.7	10.2
여자	100.0(250,088)	—	21.2	11.7	4.4	14.6	1.5	15.4	2.2	5.2	2.2	0.1	21.5
여자비율	26.8	—	45.0	67.8	34.1	14.2	37.0	43.4	2.7	32.8	13.2	4.0	56.8
1986													
계	100.0(971,127)	—	12.7	4.6	3.4	28.3	1.3	10.0	20.9	4.2	4.4	0.7	9.5
여자	100.0(258,127)	—	21.7	11.4	4.2	15.0	1.8	15.3	2.7	5.2	2.3	0.1	20.2
여자비율	26.6	—	45.2	66.0	32.8	14.1	38.5	40.5	3.4	33.3	13.8	4.9	56.7

주: 1) 4년제 대학교단입.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여성 관련 사회 통계 및 지표, p.180.

9.8%로 오히려 남녀 차이는 더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계 학사 학위는 여자 21.11%, 남자 37.58%이며, 석사 학위는 여자 1.53%, 남자 6.74%, 박사 학위는 여자 0.068%, 남자 0.581%이다. 이

學位取得者の 인구 만명당 비율은 1985년 현

사 학위는 여자 0.068%, 남자 0.581%이다. 이

는 1965년과 비교하면 각각 4.32%, 20.80%와 0.08%, 0.72%와 0.006%, 0.035%로 남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학위 정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인 남녀 차이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6년 현재 전공 분야별 여자 대학생 분포는 어문학계 21.7%, 사범계 20.2%, 이학계 15.3%, 예술학계 11.4%, 의약학계 5.2%, 인문과학계 4.2%, 공학계 2.7%, 농림학계 2.3%, 체육학계 1.8%, 해양수산학계 0.1%이다. 반면에 남자의 경우 사회과학계, 공학계, 어문학계, 이학계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공 분야별 여자 대학생 비율은 예술계(66.0%), 사범계(56.7%)가 과반수로 나타났으며 공학계(3.4%), 해양수산계(4.9%)는 극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 이학계가 세 번째로 높은 이유는 가정대학의 각 과가 이학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학과 선택에서도 전통적 男女分業의 役割觀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에서의 여학생 비율을 살펴 보면, 1986년 현재 방송통신대학이 42.0%와 개방대학 10.0%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성별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지표상에 나타난 여성의 고등교육 기회는 절대수에 있어서 양적 증가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성별 비교를 통해서 볼 때, 여전히 성간의 상대적 격차 현상을 보여준다. 교육 단계별로 볼 때, 높아질수록 여성의 비율은 낮으며, 고등교육 단계의 경우 진학율, 취학율 등은 더욱 저조하다. 여성 능력 개발의 차원에서 여성의 불평등한 고등교육 기회는 기본적으로 장애요인이 된다.

2) 敎育의 過程

한국에서의 여성교육의 역사는 대략 3단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여성을 위한 형식적 교육이 全無하던 시대의 비형식적 교육을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던 시기, 둘째는 여성을 위한 近代的 학교 교육이 시작되어 해방에 이르는 시기, 셋째는 해방 후 民主主義 敎育 이념이 도입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1886년 이화학당이 시작되기 전까지 여성은 형식적 교육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이화학당의 시작이 우리나라에서 新女性敎育의 시작이며, 이화의 100년 역사는 곧 한국 여성교육의 100년史로 이어지며, 또한 여성 고등교육 기관의 嚆矢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여학생으로 1886년 시작된 이화학당은 4년제 대학으로 신설되기까지 22년의 긴 시간이 걸렸다. 즉 1904년 중등과(4년) 학제 신설, 1910년 4년제 대학과 신설, 1912년 보통과로부터 대학과까지 정식 인가, 1914년 대학과 졸업생 3명 배출, 1925년 이화전문학교 승격, 1946년 이화여자대학교로 문교부 인가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대학교육이 시작된 것은 1946년 8월 22일 미군정청 학무국에 의해 창립이 발표된 서울대학교와 같은 해 8월 15일 이화여자대학교가 설립 인가를 받으므로 최초의 여자 종합대학이 된 셈이다.²⁾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公式적으로 추구해 온 교육 이념은 민주주의 교육 이념이다. 이는 헌법 제1조와 교육법 제1조에 弘益人間的 이념과 民主敎育의 이념이 결합되어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육의 목적은 敎育法 제108조에 “대학은 국가와 인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精緻한 응용 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보편적 대학교육의 이념을 추구하기 위하여 특히 여성 고등교육 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대학의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 본교는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 방법을 교수·연구하는 동시에 인격을 도야하여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자 여성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6), 한국의 여성교육과 미래의 세계, p.17.

부산여자대학 :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 이념에 입각하여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 방법을 교수·연구하는 동시에 널리 지식을 教授하고 인격을 드야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 여성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여자대학 :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 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민족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학지와 기술을 栽培하며, 아울러 건전한 사상과 봉사 정신이 강하고 원만한 인격을 겸비한 여성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여성 고등교육의 이념은 일반적으로 보편적 한국 고등교육의 이념에 ‘여성 지도자’ 또는 ‘지도력 있는 여성’을 양성함을 교육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던 한국 대학에서 이와 같은 여성 고등교육의 이념은 어떻게 실천되어져 왔는가?

단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대학교육 기관은 여성 고등교육 이념을 결여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현대 한국의 교육 이념은 性의 構造의 문제가 內在하고 있기 때문이다. 性의 構造는 교육 이념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으로서의 性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와 이 의미 구조와의 상호 관계를 뜻한다. 즉 性을 범주로 하는 교육 이념의 多變化 현상의 관계적 성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다.³⁾

해방 전의 近代教育에서는 男女의 교육 목적이 別個로 되어 있었으나, 해방과 더불어 교육 제도의 男女 單一化와 더불어 民主主義 教育理念를 추구하여 왔다. 즉 公式的 수준에서의 한국 교육 이념은 해방 이후 平等教育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우리가 추구한 민주 교육 이념 속에 性의 구조가 對稱적으로 통합되어 있지는 못하였다(한명희, 1987). 즉 표면적으로는 평등교육을 지향하고 있었으나 내면적으로는 교육 이념의 二重構造를 지향하여 왔다. 다시 말하자면 公式의 수준에서의 教育理念과 표면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潛在的 수준에서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教育理念과의 不一致

이다. 이는 교육의 過程 속에서 교육 이념이 실천되는 문제와 관계된다. 그러므로 형식적 構造 속에는 男女 兩性은 對稱的 의미의 평등을 지향하고 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는 非對稱的 의미의 불평등적인 요인들을 지닌다.

이와 같은 문제는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家父長制에 기초한 것이며, 家父長的 이데올로기가 교육에 반영된 결과이다. 고등교육이 지향하는 교육 이념은 남녀 공통의 이념과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家父長的 가치 구조에 의하여 구성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발견된다.

앞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여성 고등교육의 목적은 크게 ‘학문 연구’와 ‘여성 지도자의 양성’의 기능 수행에 있다. 학문 연구와 여성 지도자의 양성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어떠한 학문 연구와 어떠한 여성 지도자 양성인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에서 성별·전공 분야별 대학생 비율은 남녀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남자의 경우 사회과학계, 공학계, 어문학계, 이학계의 순서로 나타난 반면, 여자의 경우 어문학계, 사범계, 이학계, 예술학계의 순서이며, 전공 분야별 여학생 비율을 볼 때 예술계, 사범계에서 과반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전히 전통적 男女 役割觀에 기초한 결과로 판단된다.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教授되는 교육 내용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 발전되어 온 학문의 역사는 남성의 관점과 시각에서 연구된 것이라는 전제 아래서 지식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성 차별주의(sexism)는 남성과 여성간에 차이를 초래하는 자연적 질서가 존재한다는 人間觀을 가설로 하여 여러 학문을 구성하여 왔다. 즉 첫째로 남녀의 신체 구조의 차이는 남녀의 운명을 각각 상이하게 전개시킨다는 생물학적 결정론의 입장을 취하며, 둘째로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은 양극을 이루고 있다는 성 역할 二分法에 근

3) 한명희, (1987), “교육 이념에 나타난 성의 구조”, 한국여성학 제 3 집, p.12.

거하고, 세계로 남성 우월성 편견에 기초하여 여성을 열등시하는 관점에서 모든 학문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1977년 2학기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女性學 강좌가 이화여자대학교의 선택 교양 강좌로 개설되었다. 또한 1982년도에는 대학원에 여성학과가 설치되어 1984년도부터 여성학 석사를 배출하고 있다. 그 이후 여성학 강좌는 20여 개 대학에 확산 개설되었으며, 대학 밖의 일반 여성단체의 교양 강좌와 평생교육 과정으로 여성학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학'이라는 강좌명은 동일하여도 강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여 여성학의 학문적 기본 방향과 관점을 달리하는 전통적 여성론이 강의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닌다.

교육의 과정과 관련하여 여자 대학생들을 위한 生涯教育 체계의 미비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生涯教育은 自我概念을 구체화시키고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준비, 생애 계획에 대한 책임감, 意思決定能力을 배양하고 협동적인 사회적 행동과 여성간의 社會關係網 형성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생애 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자기 생애를 인식하게 하고 생애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생애를 선택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특히 여대생을 위한 생애교육은 고학력 여성의 사회참여 의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여성의 一次的 역할을 家庭內로 전제하면서 이루어진 여성교육에 의해서 고학력 여성들이 生涯職을 갖는 데 어려움을 갖게 하였다. 물론 대학교육이 반드시 직업교육을 위한 준비만은 아니지만 고등교육 기관은 形式教育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대학교육은 진로 지도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여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분명히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自我分化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또한 전통적·인위적으로 받아 들여져 온 역할 지각(work-role perception)에서 탈피하여 자신의 생애를

보다 밝은 전망과 가능성 속에서 전략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방향에서 진로 지도가 요청된다.⁴⁾

현재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생애 지도 교육은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학생생활지도연구소 등과 같은 기관에서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생애 선택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제까지 수행된 여성 관련 연구들은 여성의 형식적 교육 기회의 증대가 여성의 중요한 生活局面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여성교육의 成果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결혼과 가정의 형태, 여성의 勞動力에의 참여, 출산 행동 등을 의미 있는 生活局面으로 설정하고 있다(Giele and Smock, 1977, Smoke, 1981).

假說的이며 단편적인 접근을 통하여 여성의 교육적 성취와 여성의 노동력의 참여 사이의 관련성은 直線的이기보다 非直線的으로 묘사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여성의 교육 증대가 필연적으로 의미 있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이 예측될 수 있다. 여성의 교육적 성취 수준의 향상이 여성들로 하여금 좀더 넓은 生涯選擇을 하도록 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Smoke, 1981).

따라서 本稿에서는 여성의 고등교육 기회의 결과로서 여성의 生活局面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특히 여성의 경제 활동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1960년대부터 女性 人力의 활용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家事勞働의 감소와 육아 기간의 단축으로 여성의 여가 시간은 증대되고 교육 수준의 향상 및 女性意識의 변화로 여성이 가정 밖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적 여건은 조성되었다. 한편 産業化와 급속한 經濟成長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經濟構造가 변화함에 따라 女性 人力의 수요가 증대되어 과거 70년간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는 급속한 증가를 보여 왔다.

4) 이성호, (1983), "여대생 진로지도의 예시적 실천사례", 여성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여성개발원, p.64.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활동 참여 규모를 보면, 남성은 경제 활동 참가율이 거의 변화가 없으나 여성의 경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70년대를 통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就業은 남성의 취업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1985년 현재 여성은 5,969천 명이 경제 활동에 참가하여 40.6%의 참가율을 보이며, 경제 활동 참가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8.37%이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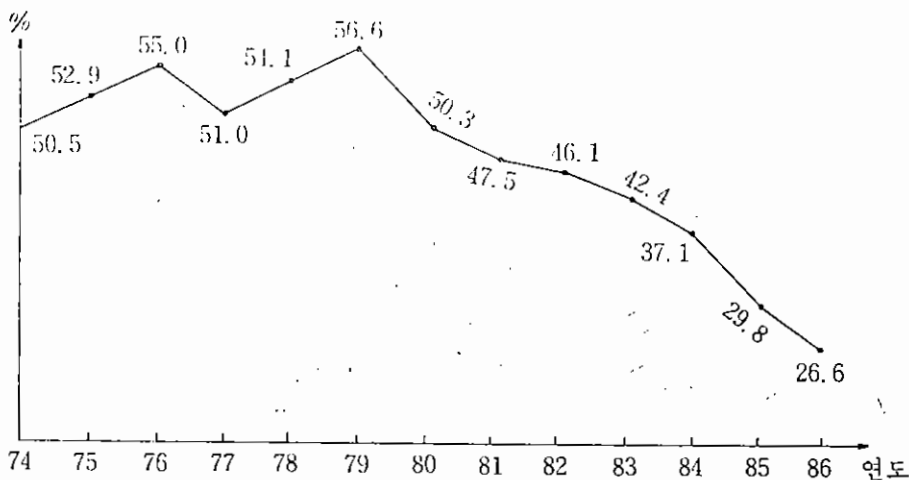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특성을 보면, 市部에서는 저연령층 및 미혼 여성의 참가율이 높은 반면 郡部에서는 중·고 연령층 및 기혼 여성의 참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 정도별로는 市·郡部에서 모두 미혼의 離卒 女性の 참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1980년 시부: 78.0%, 군부: 67.1%), 大在 이상층에서는 無配偶 여성의 참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1980년 시부: 47.2%, 군부: 75.0%). 임금 근로자 및 常傭의 비율은 1970년에는 여성 임금 근로자 비율이 남성의 반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여성 임금 근로자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常傭 비율은 현저히 낮게 나타나 여성 경제 활동 참가자의 대부분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음을 보여 준다.

여성의 고용 구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고등교육 여성 인력의 活用 문제이다. 1985년 현재 대졸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36.3%로서 대졸 남성 경제 활동 참가율 95.4%에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30~40대 대졸 여성 취업율은 훨씬 더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高學歷 여성의 사회 참여 의식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여자 대학생들의 졸업 후의 취업 희망율은 '70년의 74.2%, '77년의 74.2%에서 '85년 현재 96.6%로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기업체의 고학력 여성 忌避 現象은 여전히 변화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 시장의 변동에 둔감한 여성들의 전공 선택 및 '80년대 중반의 대졸 인력 공급 과잉 현상이 가중되어 대졸 여성은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다. 대졸 여성의 취업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표 4〉 참조) '85년 현재 失業率은 10.1%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⁶⁾

또한 여성의 교육 수준과 경제 활동 참여와의 관계를 女性 遊休 人力의 실태를 통해서 살펴 볼 때, 고급 여성 유휴 인력⁷⁾의 효율적 활용의 문제가 제기된다. 교육 정도별 遊休 人力 대상자⁸⁾비

〈표 4〉 大卒 女性の 就業率 推移



자료: 경제기획원(1986), 인력통계

5) 한국여성개발원(1986), 여성 관련 사회 통계 및 지표, p.199.

6) 한국여성개발원(1986), 2000년을 향한 국가 장기 발전 구상, p.79.

7) 여성 유휴 인력은 실업자, 불완전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家事從事者 중 여가 시간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표 5〉 유휴 인력 대상자의 교육 정도
(단위: %)

학 력	유휴 인력 대상자 비율
무 학	30.8
국 중	38.3
중 중	44.9
고 중	45.4
초·전 문 대 중	53.6
대 중 이 상	45.6
계	42.0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공공 분야 및 사회 복지 분야에 있어서 여성 유휴 인력 활용에 관한 연구, 1984, p. 87.

올은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대상과 비율이 높아져 初大·專門大 졸업자인 경우 53.5%로 가장 높으나, 大卒者의 경우에 있어서 다시 낮아져 45.6%에 이르고 있다(〈표 5〉 참조).

한 사람의 대졸자를 배출하기 위한 비용이 1980년 不變價로 계산하여 892만 원으로 추산된다.⁸⁾

이와 같이 고학력 여성의 死藏은 여성교육 투자에 대한 社會還元率이 매우 낮다는 사실과 더불어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 큰 손실이다.

물론 대학교육이 반드시 취업 교육이나 실무 준비 교육은 아니지만, 현대 산업 사회에서 대학에서의 전공 분야가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중요하다.

3. 맺는 말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글은 한국 여성 고등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밝히고자 한 부분적 시도이다.

이를 위한 노력은 한국에서의 여성 고등교육의 機會, 過程, 結果로 집약시켰다. 교육 기회의 측면에서 볼 때, 해방 후 전체 대학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 고등교육 인구도 그 절대수에 있어서 증가 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가 추세 속에서도

대학 진학율, 취학율, 평균 교육 연구, 전공 선택, 학위 취득 등과 관련된 교육 指標上에는 여전히 남녀간의 격차를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 대학이 명시적으로는 교육 기회 균등을 지향하고 있으나, 묵시적으로는 同一한 교육 접근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교육의 過程의 측면에서 볼 때,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男女平等 理念을 지향하고 있으나 敎育課程의 실천에 있어서 교육 이념의 二重構造를 지닌다. 즉 여자대학교의 교육 이념, 여대생들의 생애 지도와 진로 지도, 대학의 敎育課程, 학문의 구성 및 내용 교수 과정 등에서 전통적 性 役割 이론과 性別主義的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불평등한 敎育의 過程의 결과는 家父長制 사회에서 왜곡된 女性像을 지향하고, 性構造의 차등적 특성을 강화하고 재생산하게 된다.

여자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람직한 여성 지도자의 양성보다는 차라리 지배층 남성 집단의 동반자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특수한 문화의 전달 기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강조된 점을 배제할 수 없다.

교육의 結果의 측면으로 고졸한 대졸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 큰 손실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직업 구조와 不一致를 보이는 여자 대학교육, 성 차별적 노동 시장의 구조와 더불어 준비되지 못한 여자 대학생들의 직업 의식 등은 복합적으로 고학력 여성의 직업 획득 과정에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한받게 되며,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低賃金, 低生産性, 失業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여성의 경제적 능력은 독립된 여성이 되기 위한 기본적 조건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더욱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한국 여성 고등교육은 해방 이래 양적·질적 교육의 발전을 이루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교육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된다. 대학은 여전히 사회의 性 差別的 文化를 그대로 반영하는 곳으로 어차피 여성의 人間化를 위하여 부적절한 곳이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여성 고등교육은 人間敎育에 실패하였다고 이해될

8) 한국여성개발원, (1984), 여성과 발전, p. 13.

수밖에 없다.

*

임선희(1985), "여성과 교육", 여성백서,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1984), 여성과 발전.

_____ (1984), 공공 분야 및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여성 유휴 인력 활용에 관한 연구.

_____ (1986), 2000년을 향한 장기 발전 구상.

_____ (1986), 여성 관련 사회 통계 및 지표.

한명희(1987), "교육과 성의 구조", 한국여성학 제 3 권.

한준상(1983), 한국 대학교육의 회생선.

<참 고 문 헌>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1978), 한국의 여성 고등교육의 방향,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이성호(1983), "여대생 진로 지도의 예시적 사례", 여성연구, 제 1 권 제 1 호, 한국여성개발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1987), 한국의 여성 고등교육과 미래의 세계.

<投 稿 案 內>

「大學教育」 제36호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公募합니다.

1. 內 容—大學教育에 관련된 論說, 대학에서의 研究 및 教授 활동 중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主題에 관한 논의, 각 學科의 교육 과정이나 교수·학습 활동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와 외국에서의 연구 동향 소개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글

① 論 壇 ② 教授談論 ③ 學科別 教育課題

2. 枚 數—200자 원고지 35매, 45매 또는 54매 (②는 15매 또는 23매)
3. 期 限—1988년 9월 20일
4. 稿 料—매당 2,500원(채택된 원고에 한함)
5. 提 出 處—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韓國大學教育協議會 (전화 783-3891, 3067)
6. 附 記

- ① 國漢文을 혼용하되 漢字를 제한하고 필요할 때에는 原語를 併記해 주십시오.
- ② 論壇原稿에는 반드시 200字 이내의 要約文이나 拔萃文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③ 제출된 원고는 編輯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게재합니다.